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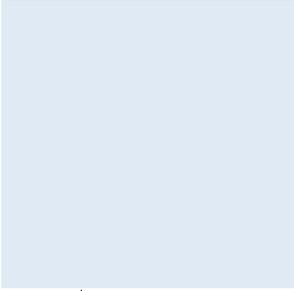
소사문화 아카이빙
결과보고서

『2018 소사문화아카이빙』
결과보고서

2018. 12.



가톨릭대학교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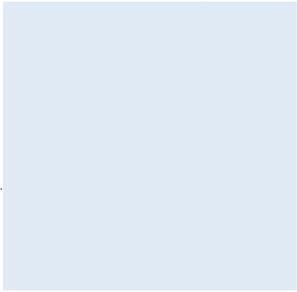


부천시장 귀하

본 보고서를
『2018 소사 문화 아카이빙』 용역의
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8. 12

연구책임자
가톨릭대학교
교수 정영금



목차

I. 과업개요

1. 과업명	7
2. 과업배경 및 목적	7
3. 과업의 범위	8
1) 공간적 범위	8
2) 시간적 범위	9
3) 내용적 범위	9
4. 과업추진체계	10
1) 사업팀 조직도	10
2) 업무분담	10
3) 추진일정	11
5. 사업성과	12

II. 문화 · 역사 · 인물 아카이빙

1. 과업개요	17
1) 과업필요성	17
2) 추진과정	18
2. 소재마을 아카이빙 북	19
1) 소재의 옛 이야기	21
2) 소재가 낳은 인물	30
3) 소재마을 이야기	32
4) 소재의 오늘	39
5) 2018 도시재생 아카이빙	45

목차

Ⅲ. 마을 전문가 육성

1. 과업개요	51
1) 과업필요성	51
2) 추진체계	51
2. ‘소사문화 아키비스트’ 전문가 육성 과정	55
1) 1회 교육	55
2) 2회 교육	59
3) 3회 교육	62
4) 4회 교육	65
5) 5회 교육	67
6) 6회 교육	69
7) 진행결과	75

Ⅳ. 스토리텔링 북 제작

1. 과업개요	83
1) 과업필요성	83
2) 추진과정	84
2. 소재마을 이야기 자료집	86
3. 소재마을 이야기 문학집	88

V. 아카이빙 사업의 향후 활용방안

1. 아카이빙 활용방안	98
1) 정책제안	95
2) 사업제안	97
2. 스토리텔링 활성화 방안	100
1) 사업제안	101
2) 스토리텔링 북 활용방안	102

1. 과업개요

1. 과업명

- 2018 소사 문화 아카이빙

2. 과업배경 및 목적

- 2018년 소사 문화 아카이빙 사업을 통하여 소사본동 일원 원도심지역내 문화, 역사 및 인적자원 등에 대한 심층자료를 조사, 수집하여 아카이빙하고, 주요 역사적 소재들을 스토리텔링화하고자 함.
- 현재 2017년 소사 문화 아카이빙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역사 및 주민 대상 이야기 등의 기초적인 자료가 수집되었음. 이를 정리, 확인함과 동시에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아카이빙은 과거를 보존하고 수집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재창조하면서 현재화 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함. 이에 소사 문화아카이빙 사업은 소사 지역의 문화·역사 자산을 발굴하여 공유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정체성 확립에 활용함.
- 이에 본 사업은 소사 지역의 역사 자료를 기반으로 지역 주민들이 말하는 소사의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 또는 자신들의 이야기들을 수집, 기록하여 스토리텔링이라는 변형과정을 통해 ‘소사 문화아카이빙’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음.
- 이 자료는 향후 사진, 연극, 영화,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 및 시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2019년 이후 소사 문화 아카이빙 사업의 기반이 됨.

3. 과업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2018년 5월 ~ 2018년 11월



- 소사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사업대상지
- 부천시 소사본동·소사본3동 일원(약 0.84km²)

2) 시간적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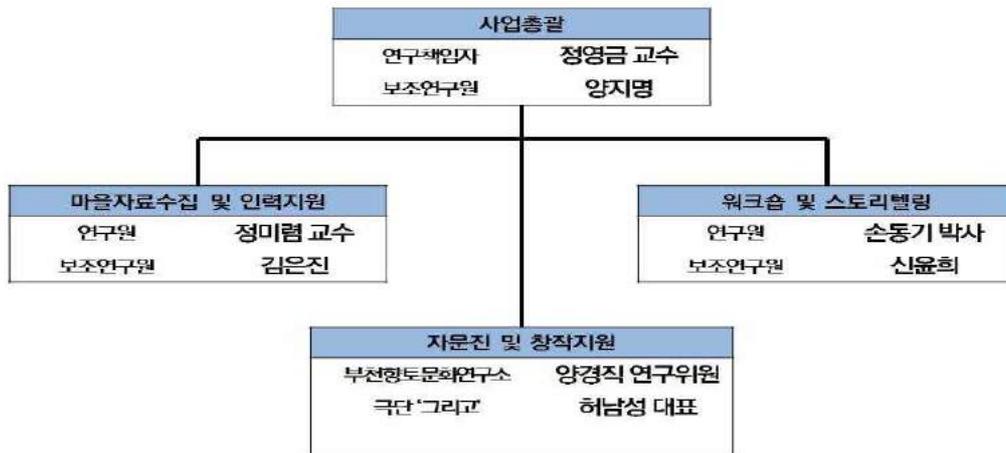
- 2018년 5월 ~ 2018년 11월

3) 내용적 범위

구분		내용
기초 자료 수집	소사 문화역사 자원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사지역 기초자료 확인 • 추가 자료 수집 계획
	아카이빙자료 추가 심층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자료 수집 • 현장자료 수집
전문가 양성 워크숍	워크숍 홍보 및 참여자 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카이빙 워크숍 홍보물 제작 • 아카이빙 워크숍 참여자 모집 • 자료집 제작 준비
	아카이빙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카이빙 기초 워크숍 • 아카이빙 교육 • 아카이빙 교육 종료 및 결과물 정리
스토리 텔링	마을이야기 자료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이야기 자료집 정리 • 자료집 확인작업
	문학자료 가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화, 시나리오 제작 • 관련 자문
결과보고	사업 활용 및 보고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재생과정 정리 • 아카이빙 자료의 향후 활용방안 모색 • 보고서 작성
	결과물 제작 및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물 제작 및 보고

4. 과업추진체계

1) 사업팀 조직도



2) 업무분담

구분	업무내용	담당자	
		책임	보조
마을자료 수집 및 워크숍	• 소사지역 기초자료 확인	정영금 정미림	양지명
	• 역사 및 현장자료 수집	손동기 양경직	김은진
	• 아카이빙 워크숍 홍보 및 운영	정미림 손동기	김은진
	• 아카이빙 워크숍 및 교육(총 6회)	손동기 양경직	김은진
스토리텔링	• 마을이야기 자료집 제작	손동기	신윤희
	• 동화, 시나리오 제작	전문가	신윤희
	• 관련 자문		
결과물 제작 및 보고	• 소사 도시재생사업 기록	정영금	양지명
	• 결과물 제작과 보고	정영금	양지명

3) 추진일정

구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소사 문화역사 자원조사	■						
아카이빙자료 추가심층조사	■	■	■				
워크샵 홍보 및 참여자 모집		■					
아카이빙 워크숍		■	■	■			
마을이야기 자료집			■	■			
문학자료 가공				■	■	■	
도시재생 사업기록 및 보고서작성						■	
결과물 제작 및 보고							■

5. 사업성과

과업지시사항		업무내용	성과품
문화·역사·인물등에 대한 자원 및 자료의 조사·수집과 기록화	지도, 서적, 논문, 주민 소장자료 등을 통한 사전 문헌조사 및 현장조사	2017년 소사문화 아카이빙사업에서 수집된 결과와, 2018년도 사업에서 추가적으로 수집한 역사적, 사건, 인물, 공간 그리고 주민들의 구술사를 체계적으로 엮어내어 기록물의 형태인 '아카이빙 북'으로 제작함	소새마을 아카이빙 북
	소사문화 아카이빙 워크숍 실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아키비스트를 교육, 양성하여 지속적으로 마을 전문가로 활동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2018 사업에서도 전문가 양성 워크숍을 통해 주민 주도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함	소사 문화 아키비스트 전문가 육성과정 진행
	도시재생 사업 전후 진행과정에 대한 기록 및 활용방안 수립	소사 도시재생사업의 2018년도 진행사업(총 14개 단위사업)의 사업 개요, 추진과정, 사업 성과등을 기록함	2018 소사 도시재생 아카이빙

문화 · 역사 · 인물등에 대한 스토리텔링 과 활용 방안	지역문화 · 역사 · 인물등에 대한 스토리텔링	'소새마을 이야기 자료집'은 소새 지역의 주요 콘텐츠 6가지(은행나무, 소새우시장, 고우물, 여우고개, 소새리만세운동, 정지용시인)와 관련된 역사자료를 정리하여 기록함 기록된 자료집을 바탕으로 6편의 동화와 1편의 희곡을 수록한 '소새마을 이야기 문학집'을 제작함	소새마을 이야기 자료집 소새마을 이야기 문학집
	향후 스토리텔링 활용방안 제시	2018년 도출된 결과물과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2019년 이후 아카이빙과 스토리텔링의 활용방안을 제시함 스토리텔링 소재와 아카이빙 결과물을 사업 및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기타지역 사례를 제시함	2018 소새문화 아카이빙 결과보고서

II. 문화 · 역사 · 인물 아카이빙

1. 과업개요

1) 과업필요성

- 2017년 소사문화 아카이빙사업에서 수집된 결과와, 2018년도 사업에서 추가적으로 수집한 역사적, 사건, 인물, 공간 그리고 주민들의 구술사를 체계적으로 엮어내어 기록물의 형태인 '아카이빙 북'으로 제작함
- 현재 이루어진 아카이빙 자료는 지역주민의 구술과 기억에 의존한 자료이므로 문헌고찰을 통해 역사적인 사실의 확인과 재접근이 필요함
- 소사 지역의 역사자료 이외에도, 도시재생 사업의 결과와 주민 인터뷰의 내용을 토대로 도시재생 사업 과정을 아카이빙하여 수록함
- 마을 주민들의 기억과 추억이 아카이빙된 '아카이빙 북'은 지역의 기억이 없는 이들도 마을해설사를 통해 구술정보와 장소정보를 연결함으로써 마을 주민들의 기억을 공유하는 체험 제공의 활용가능성을 지님
- 완성된 아카이빙 북은 2018년도 이후에도 소사문화 아카이빙 및 소사지역 도시재생 사업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함

2) 추진과정

- 2018. 05.19. 양경직 위원(부천문화원) 1차 마을기초자료 제공
- 2018. 05.29~07.09. 기타 마을역사자료의 조사 및 수집
- 2018. 07.04. '아카이빙 북' 제작관련 1차 회의
- 2018. 07.09. 양경직 위원(부천문화원) 2차 마을기초자료 제공
- 2018. 07.25. 양경직 위원(부천문화원) 3차 마을기초자료 제공
- 2018. 08.03. 양경직 위원(부천문화원) 4차 마을기초자료 제공
- 2018. 08.01. 1차 주민 인터뷰 진행
- 2018. 08.07. 2차 주민 인터뷰 진행
- 2018. 08~09. 주민 인터뷰자료의 전사작업 및 기록화
- 2018. 08.22. 중간보고
- 2018. 10.02. '아카이빙 북' 제작관련 2차 회의
- 2018.11.02.~05. '아카이빙 북' 1차 교정
- 2018. 11.07. 수시보고
- 2018. 11.20. '소사마을 아카이빙 북' 초안 완성
- 2018. 12.03. 사업 준공

(1) 자원 및 자료의 조사·수집

- ‘소사 문화 아카이빙 북’ 제작을 위하여 소사 지역 아카이빙 소재에 대한 자료를 수집 및 검토함

구분	내용
2017 사업결과	2017 소사문화 아카이빙 기초자료 조사·수집 용역 결과물
부천 및 소사지역 관련 문헌 및 역사자료	지명학, 고려사, 세종실록 등의 역사자료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동아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등의 보도내용
역사적 고증자료	김동규(사단법인 금강경독송회 대표) 등의 증언자료
마을지 등 문화자료	‘부천 소재울에 산다’ ‘소재마을 이야기 지도’
지역주민 인터뷰	지역주민 10명 (주민 5, 도시재생사업 참여주민 4, 사회적 참여시민 1)
지역전문가 자문	양경직 연구위원(부천향토문화연구소)의 관련자료 제공받음
도시재생 사업실적	소사 근린재생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2017 소사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사업결과 2018 소사 도시재생사업 결과

(2) 수집된 자료의 체계화 및 기록화

- 2018 소사문화 아카이빙 사업을 통하여 수집된 역사자료의 선별과 체계화 작업을 거쳐 ‘소새마을 아카이빙 북’을 제작함
- 제작과정 중 지역전문가의 자문을 진행하여 역사적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을 진행하였으며, 교정 및 수정작업을 거침.
- 수집된 역사자료를 바탕으로 아카이빙 북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성함.

구분	내용
소새의 옛 이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사의 유래와 연혁 • 고대의 소사 • 중세의 소사 • 근세의 소사 • 근현대의 소사 • 소사의 옛 이름 이야기
소새가 낳은 인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성욱 • 박흥선 • 정지용
소새마을 이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새마을 지도 • 소새마을 이야기
소사의 오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사 주민이 들려주는 우리 마을 이야기 • 소사 도시재생 이야기

2. 2018 소재마을 아카이빙 북

1) 소재의 옛 이야기

■ 소재의 유래와 연혁

고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한: 삼한(三韓) 중 마한(馬韓)의 54개 소국 중 하나인 우휴모탁국(優休牟涿國)에 속했을 것으로 추정 ▪ BC 18 - 백제: 백제가 마한의 소국을 통합 후 백제 영역에 포섭 ▪ 475 - 고구려: 고구려의 남하 정책으로 설치된 주부토군(主夫吐郡) 내 영역에 포섭 ▪ 551 - 백제: 백제·신라 동맹군이 주부토군이 다시 백제 영토에 귀속 ▪ 553 - 신라: 신라가 백제를 공격하여 한강 하류 유역에 신주(新州)를 설치하여 귀속된 것으로 추정 ▪ 759 - 통일신라: 경덕왕이 주부토군(主夫吐郡)을 장제군으로 개칭
중세-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려 초기- 장제군이었던 부천 지명을 수주(樹州)로 변경 ▪ 1215 - 고종 2년 계양도호부(桂陽都護府)가 됨. ▪ 1308 - 충렬왕 34년에 도호부에서 길주·목(吉州牧)으로 승격 ▪ 1310 - 충선왕 2년에 목(牧)에서 강등되어 부평부(富平府)가 됨
근세-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13 - 태종 13년에 부평도호부로 다시 승격됨 ▪ 1438 - 세종 20년 부평현으로 강등 ▪ 1446 - 세종 28년 다시 부평도호부로 승격 ▪ 1789 - 정조 13년 『호구총수(戶口總數)』에서 '소사(素沙)' 지명을 기재함

<p>근현대-조선(대한제국), 대한민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95년- 고종 32년 5월 26일 인천부 부평군으로 편입됨 ▪ 1896년- 고종 32년 8월 4일 경기도 부평군으로 복구 ▪ 1914년- 3월 1일 부군(府郡) 폐합으로 부평군이 폐지되고 부천군 옥산면(玉山面)에 속함 ▪ 4월 1일 면리(面里) 폐합으로 부천군 계남면(桂南面)이 됨 ▪ 1931년- 4월 1일 계남면을 소사면(素砂面)으로 개칭 ▪ 1941년- 10월 1일 소사읍(素砂邑)으로 승격됨 ▪ 1973년- 7월 1일 부천이 부천시로 승격되고 소사동(素砂洞)이 됨 ▪ 1982년- 9월 1일 소사동에서 소사1동(윗소새)과 2동(아랫소새: 소사동 포함) 분리 ▪ 1985년- 11월 15일 소사1동에서 다시 소사3동이 나누어져 소사 1,2,3동이 됨 ▪ 1993년- 2월 1일 원미구와 소사구를 구분하고 소사1,2,3동에 본(本)자를 사용 ▪ 2012년- 1월 1일 소사본1동과 2동을 통합하여 소사본동으로 함(소사본동/소사본3동)
---------------------------	--

■ 고대의 소사

<p>삼한</p>	<p>중국의 사서 『삼국지(三國志)』 「위서」 동이전에는 한반도 남부에 자리 잡고 있었던 삼한(三韓)의 소국 이름이 나열되어 있다. 삼한에는 마한, 진한, 변한이 있었는데, 역사학자 이병도는 그 중에서도 마한의 54개 소국 중 우휴모탁국(優休牟涿國)이 지금의 부천 지역에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p>
<p>백제</p>	<p>우휴모탁국은 백제가 주변 지역을 통합해 나갔기에 삼국시대 초기에는 백제의 영역에 속했을 것이다.</p>
<p>고구려</p>	<p>고구려가 백제의 품에 있었던 한강 유역을 빼앗아 버렸고, 부천 역시 고구려 영토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p> <p>고구려는 부천 지역에 ‘주부토(主夫吐)’라는 군을 설치하였다. 주부토군은 ‘물가에 접해 있는 둑이 늘어선 고을’이라는 뜻 정도가 된다.</p>
<p>신라</p>	<p>551년에 주부토군은 백제·신라 동맹군이 고구려를 공격하면서 백제의 땅이 되었다가 2년 뒤에 다시 신라가 백제를 치면서 신라에 속하게 되었다. 신라는 주부토군이 속하는 한강 하류 유역에 신주(新州)를 설치하였다.</p>

통일신라

삼국통일 후에 부천이 속한 신주는 신라 9주 5소경 중 하나인 한산주(漢山州)가 되었다. 통일신라 말기에 접어들기 직전의 시기인 742년 경덕왕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화정책을 실시하였다. 부천 지역의 지명이던 주부토군(主夫吐郡)을 중국식 지명인 장제군으로 바꾼 것도 이때였다.



사진자료 : 고강동 선사유적지

■ 중세의 소사

<p>고려 초기</p>	<p>고려 초에 장제군은 수주(樹州)가 되었는데 현재 부천에 있는 수주로(樹州路)와 같은 한자인 것을 알 수 있다.</p>
<p>고종</p>	<p>이후 의종(毅宗) 4년(1150)에는 수주를 안남도호부(安南都護府)로 바꾸었다가, 고종(高宗) 2년(1215)에는 지금의 계양구와 이름이 같은 계양도호부(桂陽都護府)로 고쳤다.</p>
<p>충렬왕</p>	<p>고려 후기 충렬왕(忠烈王) 34년(1308)에는 도호부에서 길주'목'(吉州牧)으로 행정단위가 올라갔다.</p>
<p>충선왕</p>	<p>충선왕 2년(1310)에 목(牧)의 수를 줄이게 되면서 강등되어 부평부(富平府)가 되었다.</p>

■ 근세의 소사

<p>태종</p>	<p>조선이 건국된 이후 왕권을 굳건히 했던 태종은 1413년에 부평부를 부평도호부로 올렸다.</p>
<p>세종</p>	<p>세종 20년에 이르러 다시 부평현(富平縣)으로 강등되고 말았는데, 그 이유가 조금 특이하다. 세종은 온수(溫水)가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하는데 뛰어나다고 생각하여 백성을 위해 온수를 구하고자 결심을 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부평부에 온수가 있다는 것을 듣고 그 소재를 알고자 하였으나 고을 사람들이 그 소재처를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 여러 번 사신을 보내어 찾고자 해도 관료나 아전, 백성들이 세종의 뜻을 알아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세종은 노하여 온천을 숨긴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부평부를 강등시켜 현으로 하였다고 한다.</p>
<p>부평도호부 승격</p>	<p>얼마 지나지 않은 세종 28년, 온천 찾기는 일단락되고 부평현을 다시 도호부로 삼았다. 이후에도 왕에 따라 부천 지역의 행정단위는 도호부에서 부로, 부에서 도호부로 부침을 겪게 되었다.</p>
<p>정조</p>	<p>정조가 조선을 통치하던 1789년에 드디어 소사라는 이름이 역사 자료에서 처음으로 확인된다. 정조 13년(1789년)에 간행된 『호구총수(戶口總數)』에 ‘소사리(素沙里)’라고 기재된 것이 최초라고 볼 수 있다.</p>

■ 근현대의 소사

<p>1800년대</p>	<p>고종은 부(府)와 군(郡)의 새 규정을 정하였다고 하면서 칙령(勅令) 제 98호로 <지방 제도의 개정에 관한 안건[地方制度改正件]>을 선포하였다. 해당 칙령으로 조선은 전국을 23부(府)의 행정 구역으로 나누었는데 이때 소사는 인천부(仁川府) 부평군에 속하게 되었다.</p> <p>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은 1896년에 다시 지방제도를 고쳐 한성부와 13도를 제정하였다. 이때 각도의 구역을 부(府)·목(牧)·군(郡)으로 정하고 5등급으로 나누었다. 소사 지역은 다시 경기도의 34군 중 하나인 부평군에 편성되었다.</p>
<p>1900년대 초기</p>	<p>일제의 침략으로 나라를 빼앗긴 후 4년 뒤인 1914년 3월 1일에 일제는 부평군의 전 지역과 인천부 일부, 남양군 일부, 강화도 일부를 합쳐 부천군(富川郡)을 만들었다. 이렇게 신설된 부천군은 이름과 비슷하게 부평군의 일부의 면을 합친 결과였다. 소사는 옥산면에 속해 있었는데 옥산면은 계남면(桂南面)으로 통폐합되었다.</p> <p>1931년 4월 1일에는 경기도 6개 면의 명칭을 변경하였는데, 이때 계남면은 소사면으로 명칭이 바뀌게 되었다. 1941년 10월 1일에는 장호원(長湖院), 여주(驪州)와 함께 소사읍으로 승격되기도 하였다.</p>

1900년대 후기	<p>해방 이후에는 점차 소사 지역의 인구가 급증하였는데, 1973년 7월 1 일에는 소사읍이 부천시로 승격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소사동 지역이 따 로 지정되었다. 1982년 9월 1일에는 소사동에서 소사1동과 소사2동으로 나누어졌다. 하지만 소사동의 인구는 80년대 중반에도 급격히 증가하여 1985년 11월 15일 소사동은 다시 소사1동, 2동, 3동으로 분리되었다. 소사2동의 경우 1988년 4월 1일 전국에 구(區)제가 실시되면서 남구 소 사2동이 되었다.</p> <p>다시 1993년 2월에 행정구역 개편으로 소사구 소사동이 원미구 소사 동과 소사구 소사본동(소사본1동, 2동, 3동)으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더 나아가 2012년 1월 1일에는 소사본1동과 2동이 통합되어 소사본동이 되 었다. 따라서 현재는 소사본동과 소사본3동으로 행정 사무가 이루어지고 있다.</p>
-----------	---



사진자료 : 소사면이 소사읍으로 승격되었다는 기사

■ 소사의 옛 이름

<p>흰 모래가 많은 지역</p>	<p>보통 흰 소(素) + 모래 사(砂)라는 뜻에 주목하여 흰 모래가 많은 지역이었기에 소사로 이름 붙여졌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p>
<p>역사가 많은 고개</p>	<p>양경직(부천문화원)의 주장에 따르면, '새고개'는 지명학에서 역사가 많은 고개를 가리킨다고 한다. 소사동 역시 새고개 아래 마을이기 때문에 '흰 소'자를 붙여서 소사리로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것을 후대에 사(莎)와 소리가 같은 모래 사(沙)로 잘못 표기하였을 것이라는 추정이다.</p>
<p>쇠고개</p>	<p>『부천시사』에서는 쇠를 오래 산 촌로들이 소새(쇠)라고 발음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 지역에 철광산이 있었을 것이라고 제시한다.</p>
<p>솔새</p>	<p>소새의 어원을 '솔새'로 보는 설이다. 솔새에서 '르'이 탈락하여 소새라고 부르게 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몇몇 학자들은 동쪽에 신성한 산꼭대기를 바라보고 있는 마을을 표현하고자 아주 높고 신성한 것을 가리키는 '수리'에서 파생된 '솔'을 채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p>



사진자료 : 『여지도』(1736~1767)에 표기된 새고개(현재 여우고개(如牛峴))

2) 소새가 낳은 인물

<p>백성욱</p>	<div data-bbox="644 376 1161 898" data-label="Image"> </div> <div data-bbox="710 913 1096 949" data-label="Caption"> <p>백성욱(白性郁, 1897-1981) 모습</p> </div> <div data-bbox="432 1010 1353 1205" data-label="Text"> <p>백성욱(白性郁)은 매우 독특한 경력을 가진 인물이다. 그의 경력을 따라가다 보면 한 마디로 정의를 내릴 수 없을 정도로 다채롭다. 독립운동가·불교 수행자·정치가·교육 행정가로서의 삶을 살다간 그는 근대의 석학(碩學)이자 선지식인(善知識人)이었다.</p> </div> <div data-bbox="432 1223 1353 1469" data-label="Text"> <p>동국대학교 제2대 총장직을 맡고 있는 도중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동국대학교 총장을 사임하고, 1962년 경기도 부천군 소사읍 소사1리 윗소새 산 66번지에 '백성목장(白性牧場)' 간판을 내걸고, 아울러 '소사본당(素砂本堂)'을 짓고 문패에 '응작여시관(應作如是觀)'이라 쓰고 《금강경(金剛經)》을 강화(講話)하면서 후학 양성에 힘쓰면서 20년 가까이 부천에 거주하였다.</p> </div>
<p>박홍선</p>	<div data-bbox="432 1494 1353 1794" data-label="Text"> <p>1973년도에 그는 마을의 지도자가 되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새마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새마을운동의 이념을 이야기하고 관계자를 초빙하여 정신 계몽도 실시하였다. 이때 마을에서 한 부인이 어려움을 비관하여 자살을 시도하여 청년들이 부인을 업어서 읍내 병원으로 옮겼으나 부인은 끝내 숨지고 말았다. 차도만 있었다면 부인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안타까움에 마을사람들은 모두 분기하여 800m의 마을 진입로를 만들기 위한 사업에 착수했다.</p> </div> <div data-bbox="432 1812 1353 1901" data-label="Text"> <p>박홍선은 3,000m의 안길 확장사업을 하는데 반대하는 주민들과 지주들에 대한 편입용지 사용 승낙을 받기 위한 설득을 시작하여 이들의 승낙을 얻었다. 밤낮을</p> </div>

가리지 않고 일을 추진한 결과 진입로 착공 2달 만에 어려운 역경을 극복하며 완공을 하였다. 이 마을은 고된 날품팔이 생활로 실의와 좌절 속에 살아갔으나 새마을운동 당시 호당소득을 95만원이나 올리는 마을로 변모하였다.



鄭芝溶이 살던 富川집터에 붙인 기념판.

정지용이 살던 부천집터
(출처: 『동아일보』 1993년 8월 2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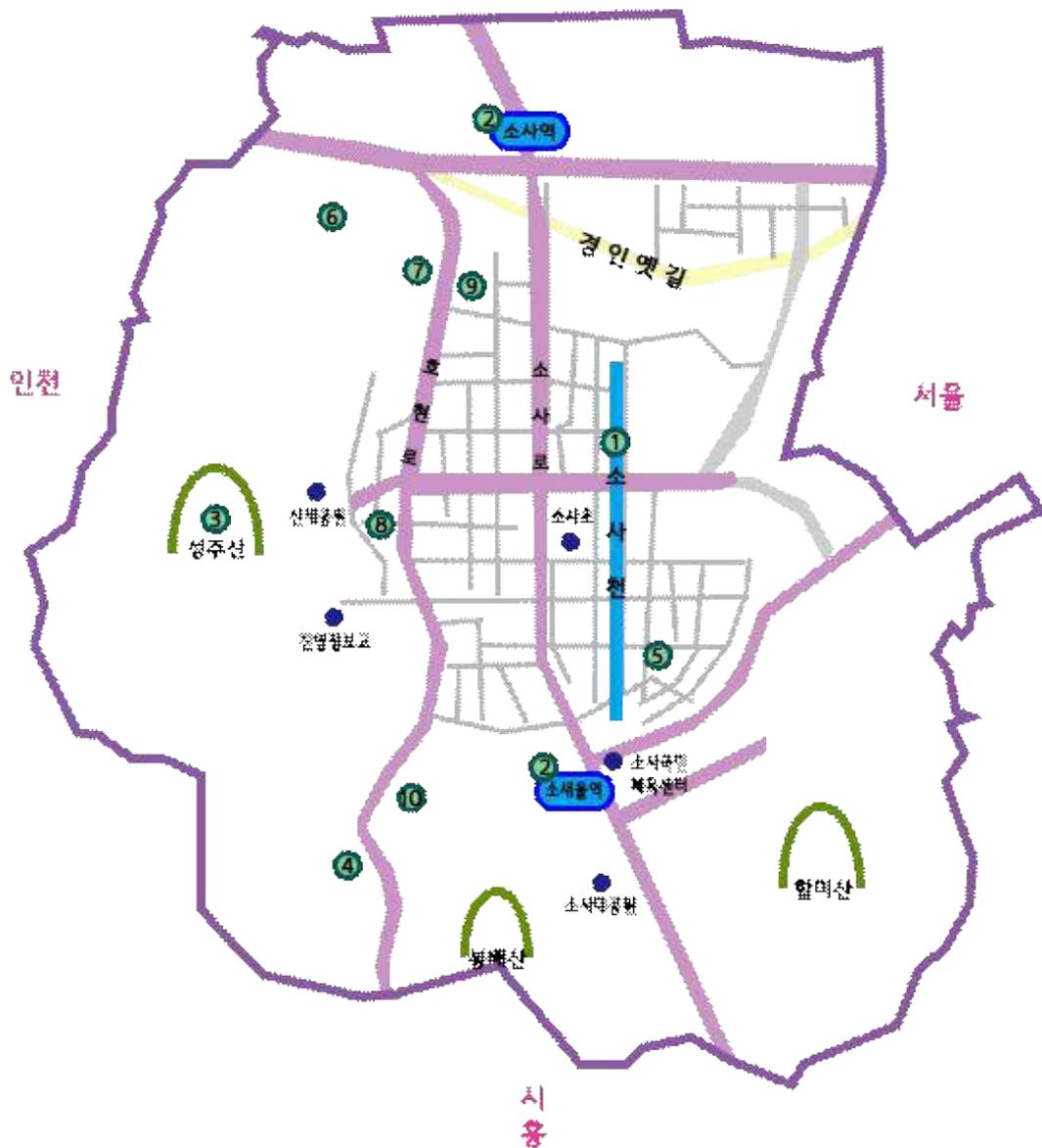
정지용

1944년 즈음 일제가 소개령을 내린다는 말을 듣고 이를 피해 부천 소사로 사는 곳을 옮기게 된다. 정지용이 가족과 함께 부천 소사동(당시는 부천군 소사읍 소사리 90-5번지)으로 이사를 온 것은 그의 나이 42세 되던 1943년 늦가을이었다. 비록 고향은 아니었지만 고향 같은 분위기의 소사는 정지용을 편안하게 만들었다.

정지용은 소사에서 거주하는 동안 지역의 성당 건립에 힘을 기울였다. 임세빈 신부와 정지용 그리고 신자들은 성당자리를 물색하였다. 그러던 중 원미산 중턱에 일본인이 쓰던 별장이 성당 자리로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선 임 신부와 정지용은 일본인이 쓰던 별장, 일명 소림별장을 돌아보았다. 정원도 잘 가꾸어져 있고 나무도 많고 참 아늑하여 성당으로 쓰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1946년 4월 5일 소사공소의 모든 신자들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성당을 마련해 첫 미사를 드렸다.

3) 소새마을 이야기

■ 소새마을 지도



소새마을 지도

- ① 소재천
- ② 소사역과 소재울역
- ③ 성주산
- ④ 여우고개
- ⑤ 일흥사
- ⑥ 은행나무
- ⑦ 느티나무
- ⑧ 윗소재 대동무늬
- ⑨ 소사우시장
- ⑩ 한미농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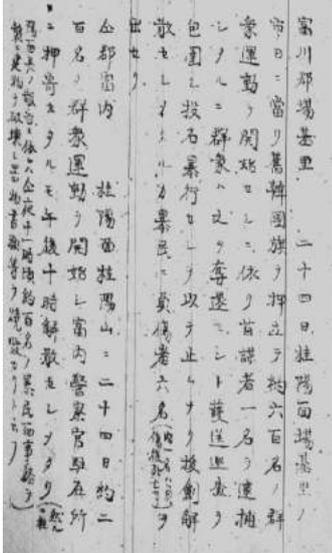
■ 소새마을 이야기

<p>소새천</p>	 <p>1960년대 소사천 얼음판에서 썰매를 타는 어린 아이들의 모습</p>	<p>소새천은 소새마을 사람들과 오랜 시간 많은 추억을 함께해온 곳이다. 소사마을 주민들은 장마철에는 소새천에 모여 고기를 잡고, 한 여름에는 아이들이 먹을 감았다. 또한 겨울에는 소새천에서 썰매를 타기도 했다.</p>
<p>소사역과 소새울역</p>	 <p>소사역의 모습 (출처: 부천시청)</p>	<p>현재 소사역의 역사는 1987년 4월 12일에 소사동, 괴안동, 범박동 주민 3천여 명이 역을 설치해달라며 국회에 청원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청원이 받아들여지면서 1997년에 경인선 복선화 사업과 함께 현 위치에 역이 신설되었다.</p> <p>소새울역은 부천 소사동과 안산시 원시동을 잇는 부천 구간에 있는 역으로, 2018년 6월 16일에 서해선 일부 개업과 함께 영업을 개시하였다. 2013년 10월 21일에는 가칭 복사역으로 명칭이 정해졌다가 마을의 고유지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따라 마을 지명 '소새'에서 이름을 따 소새울역으로 명명하였다.</p>

<p>성주산</p>	 <p>《해동지도(海東地圖)》(1750년-1751)의 성주산</p>	<p>성주산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본동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흥시 대야동 사이에 있는 산으로 부천의 동남쪽에 있으면서, 소래산과 닿고 있다. 또 주변에는 하우고개·여우고개·마리고개가 있다.</p>
<p>여우고개</p>	 <p>여우고개 (출처: 부천시청)</p>	<p>여우고개는 부천시 소사본동에서 시흥시 대야동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조선시대에는 역새가 많은 고개라 하여 '새고개(莎峴)'로 불리기도 하였다. 여우고개는 현 성주산에 부근의 고개이다. 성주산은 산의 지형이 마치 소가 누워있는 모습을 닮았다고 하여 와우산(臥牛山)으로 불렸는데, 이때 머리에 해당하는 고개인 '새고개(莎峴)' 역시 '여우고개(如牛峴)'로 불렸다.</p>
<p>일흥사</p>	 <p>1937년 일흥사</p>	<p>일흥사는 옛 소사구청 앞 소사본3동 395번지 일대에 있는 공장으로 일제강점기 수난의 역사를 보여주는 장소이다. 이는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전시체제를 마련한 일제가 군수물자를 조달하기 위해 금속 수탈을 자행할 목적으로 세운 주물공장이다. 당시 그 일대는 경기도 부천군 벌음절리, 역곡정(驛谷町)이라 불리었다. 1945년까지 운영되다가 해방 이후 폐쇄되었다.</p>

<p>은행나무</p>	 <p>1960년대 소사 은행나무</p>	<p>경기도 부천시 소사본동 100-1번지에 있는 은행나무로, 1982년 10월 15일에 경기도보호수(경기 부천 2)로 지정되었다. 수령은 1,100년에 달한다. 높이는 30m나 되고, 지름 2.6m, 가슴높이 둘레는 5m나 된다.</p>
<p>느티나무</p>	 <p>1970년대 소사 느티나무</p>	<p>느티나무는 경기도 부천시 소사본동 115-1번지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1982년 10월 15일에는 경기도보호수(경기 부천 2)로 지정되었다. 수령은 800여 년에 달해 은행나무보다는 어린 나무이다. 높이는 30m, 지름 2m, 가슴높이 둘레 5.4m에 달한다. 2000년 10월부터 은행나무와 함께 기원제를 지내고 있다.</p>
<p>대동우물</p>	 <p>2012년에 촬영한 대동우물 전경</p>	<p>윗소새 대동우물은 소사본동 호현로 401번길에 자리잡고 있다. 본래 소사리 대동우물은 3개였으나 1개만 존재하고 나머지 2개는 도시개발로 사라지고 말았다. 소사 사람들은 윗소사대동산신제 전날에 우물 청소를 하였다. 윗소사대동산신제는 소새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제의이다.</p>

<p>소사우시장</p>	 <p>소사리 소사우시장에서 1970년 부천군 제1회 가축품평회 모습. (출처 : 부천시청)</p>	<p>1927년 9월 6일 소사역 남부광장 앞 계남면 심곡리 683-1번지에 자유시장의 전신인 소사시장이 설립되어 비공식적으로 소를 거래하였다.</p> <p>하지만 우시장의 호황은 계속되지 않았다. 소사우시장의 가축의 년 매매건수가 1976년 1,204두수에서 1977년 889두수로, 1978년에는 860두수로 매년 확연하게 감소하였다. 이후 1979년 자료에는 소사우시장 자료가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이시기에 우시장이 폐쇄된 것으로 보인다.</p>
<p>한미재단</p>	 <p>1963년 부천군 소사읍 소사리에 조성된 계단식 밭과 축사(畜舍)</p>	<p>한미재단 4-H 훈련농장은 소사분동 360번지 일대 여우고개 좌측에 위치하고 있었다. '4-H' 는 '농촌계몽운동'으로, 농촌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학습하게 하여 낙후된 농촌의 생활 향상과 기술 개량을 도모하기 위한 운동으로, 한미재단이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1952년부터이다. 소사리 출신 청년들은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이곳에서 특별 우대 교육을 받았다.</p>

<p>소사 복숭아</p>	 <p>경인국도변에서 복숭아를 판매하던 모습</p>	<p>부천의 복숭아는 ‘소사 복숭아’로 불려왔다. 소사 복숭아는 수원의 딸기, 안양의 포도와 더불어 경기도 3대 과일로 불리게 되었다. 심지어는 교과서에 구포의 배, 대구의 사과와 함께 전국 3대 과일로 실리게 되었다.</p>
<p>독립만세운동</p>	 <p>1919년 3월 25일 고제(高第) 8,758호 <독립운동 관계의 건>(제26報)</p>	<p>1919년 3월 23일에는 부천군 문학면 관교리에서 햇불 만세운동이 일어났으며, 3월 24일에는 부천군 계양면 장기리에서 황어장날에 모인 약 600명의 군중이 태극기를 들고 만세운동을 하였다. 3월 24일 밤에는 계남면 소사리(素砂里) 등 여섯 개 마을 사람들이 함께 독립만세운동에 나섰다.</p>

4) 소사의 오늘

■ 소사 주민이 들려주는 우리 마을 이야기

	구분	인터뷰 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소사 주민이 기억하는 마을 이야기</p>	<p>소사지역이 속한 부천시는 1973년 부천군이 폐지되고 소사읍의 인구 6만으로 시로 승격이 되었다. 이 지역은 '전원도시' 지역으로 각광을 받았는데 사람보다 땅이 많고, 땅보다 숲이 많았다. 여기저기 복숭아밭, 포도밭 등 전원마을 그 자체였다. 이 시기의 소사에 대해서 주민들은 '시골스러운', '허허벌판'이었다고 한다.</p>	<p>“우린 여기서 태어났지요. 그 때와 비교하면 참 많이 변했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산신제를 밤늦게 지내고 먹을 것 나눠주면 받아서 먹고 그랬죠. (...) 그리고 느티나무도 옛날에 다 죽었던 것을 젊은 사람들이 다시 살려 놓은 거예요 (...) 그리고 우리 어릴 때는 우시장이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 보면 소들이 많이 오고 사람들이 매매하는 걸 봤죠. 그게 어느 순간 없어졌더라고요. (...) 참 우물이 있었는데 우리 어릴 땐 그걸 퍼다 먹었어요. 그 때는 우물이 3-4개 정도 됐어요. 우물에서 물을 퍼서 먹다가 언젠가부터 펌프가 설치가 돼서 누르면 물이 나오게 돼서 그걸 받아서 먹었죠. (...) 그리고 예전에는 집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 때는 산이고 논이고 다 복숭아밭이었어요”</p> <p>“소사동에서 산지 한 50년 됐네요. 그 때 당시에는요. 집도 없고, 허허벌판이었어요.”</p>

	<p>지역이 계획적으로 개발 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배수시설도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침수도 자주 일어났다고 한다. 1980년대까지도 주민들은 비만 오면 나와서 침수 걱정을 할 정도로 소사지역은 낙후되었다.</p>	<p>“제가 처음 결혼해서 왔을 때가 1985년도였어요. (...) 그 때는 비가 오면 황토물길에 있고 그랬어요.”</p> <p>“옛날에 소사초등학교 정문 앞에 물이 비만 오면 찻었죠. 벌터 거기에는 장롱이 막 떠다니고 그랬어요. 요즘은 아니고 70-80년대 이야기예요.”</p>
	<p>교통도 매우 불편했다고 한다. 부천역이 있었지만 걸어다니기 쉽지 않았다고 한다. 때문에 택시를 많이 이용해야 했지만 부유한 이들이 모여 살던 곳이 아닌 소사마을에서는 교통에 대한 부담이 컸다.</p>	<p>“예전에는 마을버스가 없었어요. 필요하면 전부 택시를 타야 했어요. 왜냐하면 역도 소사역이 없었고, 역곡역을 이용했으니까. 아니면 부천역까지 가야 되니까 교통이 어려웠죠.”</p> <p>“마을버스가 필요하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여기는 집 숫자는 적어도 한 집에 많은 가구가 살아요. 저희 집만 해도 다섯 가구가 살거든요. 세입자가 넷이 살아요. 그러니까 비교적 형편이 어려운 가구가 많이 사는 동네에 마을버스가 없어서 비싼 택시를 타고 다녀야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마을버스가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많이 신청했죠.”</p>

	<p>현재의 소사본동과 소사본3동이었던 소사구에 있는 주요 중소기업으로는 1973년부터 의약품, 곡분과자, 건강식품을 생산하는 서흥캡셀, 1964년에 설립되어 펌프, 전열기기, 선풍기, 스토브를 생산하는 신한일전기, 1969년도 설립되어 제지기계, 프레스기계, 일반산업기계 등을 주로 생산하는 삼양엔텍 등 많은 기업들이 있었다. 특히 주민들이 기억하는 것은 경인유리가 소사마을에서는 많은 것을 남기고 떠났다고 한다.</p>	<p>“경인유리가 들어서면서 도로로 만들어 지고 그랬어요.”</p> <p>“큰 도로가 생기고 이쪽으로 이사를 왔죠. (...) 어디 갔다가 집에 올 때 택시를 타면 경인유리에서 내려달라고 해서 산동네로 올라갔어요. 20년 전에는 경인유리가 이 지역에서 그래도 유명했어요.”</p> <p>“예전에는 경인유리 회사가 있었어요. 유리 공장이 동사무소 자리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유리공장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돈 벌면서 살았죠.”</p>
	<p>물 부족을 걱정하고, 대중교통이 부족했던 소사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주민들이 기억하는 소사는 시골스러운 풍광이 있고, 생활환경은 좋지 못했지만 착하고 순박한 주민들이 함께 시골벽적으로 살던 곳이다.</p>	<p>“옛날 산책로가 지금은 도서관 옆 공원이 되었는데 참 좋더라고요. 뭐 그래도 예전 시골적인 풍경이 좋기도 했어요. (...) 그런 게 그게 없어지고 개발되고 지금의 아파트가 들어왔죠. 나이가 든 우리 세대는 변하는 소사가 조금 아쉽기도 하죠. 그런데 자식들에게는 자꾸 발전해 가는 게 좋으니까요. 그래도 옛날 것이 자꾸 생각나죠.”</p>

	<p>소사마을은 주민들의 삶과 함께 발전을 해왔다. 물도 교통도 부족했지만 이웃이 있어서 든든했던 소사이야기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p>	<p>“80년대 여기 건축 붐이 일어나서 난리가 났던 때가 있었어요. 소사동이 82-83년도에 집을 엄청 지었죠. 그 때는 하룻밤 지나면 집세가 올랐어요.”</p> <p>“예전에는 한 집에 7집이 살았어요. 밑에 층에 6집이 방 하나, 부엌 하나 이렇게 해서 살고, 위집에 주인집 살고 해서 살았어요. 그리고 집집마다 애들이 둘씩이야 다 있고요. 그래서 골목 집집마다 애들이 다 있으니 추억이 정말 많아요. 그 때 정말 엄마들이랑 너무 재미있었죠. 그 때 사람들이 수수했던 것 같아요.”</p>
<p>소사 주민이 꿈꾸는 소사 이야기</p>	<p>소사 지역의 주민들은 이웃과 함께 마을이야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 그리고 사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주민들이 소사를 사랑하는 마음에 자신들이 이야기를 만들기 시작했다.</p>	<p>“저희보다 먼저 마을이야기를 통한 마을살리기를 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소사동에서 오래 사셨던 통장님들, 반장님들 그리고 복지관 관장님이 초기 모임의 멤버들이세요. (...) 소사동도 심곡동 못지않게 마을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도 한번 마을이야기 모아서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복지관에서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주민과 복지관이 함께 하고 있어요.”</p> <p>“부천종합복지관에서 계시는 팀장님께서 소마단에 참여를 하라고 계속 연락을 주셨어요. 그 집요함에 넘어가서 나오다가 지금까지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는 내 일이 되었어요.”</p>

		<p>“ 도시재생사업 이전부터 마을에서 인형극을 하고 있었어요. 무슨 사명감을 갖고 마을을 변화를 시켜보자는 것이 아니라 얼떨결에 참여를 한 것이 지금까지 하고 있네요. 도시재생사업 때문에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서 일이 좀 더 많이 진건 있어요. 그래도 그냥 하고 있던 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p>
	<p>자신이 알고 있는 소중한 소사마을 이야기를 함께 하고 싶은 주민들이 있다. 이들은 도시재생사업이나 마을해설사 교육을 통해서 알게 된 소사 이야기에 놀라기도 하고, 자신이 알게 된 소사이야기를 아직 모르는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고 있다.</p>	<p>“저 같은 경우는 이런저런 경우로 마을일에 참여를 하니까 우리 마을이 도시재생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지 보통 주민들은 몰라요. 도시재생사업이 몇 년 되었는데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제 주변에 많아요. 그만큼 피부에 와닿는게 없다는 뜻이죠.”</p> <p>“제가 성주산 아래 살아요. 애들 어렸을 때부터 심심하면 데리고 올라가던 뒷산인데 성주산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 성주산이라고 해서 성주산인가보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성주산이 원래는 와우산이었고, 일제 때 일본 군사들이 마음대로 지은 이름이라는 역사를 알고 아이들에게도 이야기를 해줬어요. 단 순히 책에서 보고, TV에서 보던 그런 이야기가 우리 마을에도 아픈 역사로 있다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 산 이름이 와우산으로 다시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p>

	<p>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면서 소사마을의 외형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마을에 대한 주민들의 사랑은 여전하다. 이러한 사랑에 여전히 아쉬운 점도 이야기를 한다. 그만큼 주민들과 함께 진화해온 내 마을 소사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와 사랑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p>	<p>“도시재생사업도 처음에는 긍정적이지 못했어요. 그래도 해놓고 보니 참 잘 했다 싶어요. 지금은 우리가 더 활동을 하지만요. 물론 아직 인도가 다니기가 더 편해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p>
--	--	---

5) 2018 소사 도시재생 아카이빙

- 소사 도시재생사업의 전, 후 진행과정을 기록화하여 ‘2018 소사 도시재생 아카이빙’을 별책으로 제작함
- 2018년 진행된 도시재생사업 14개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각 단위사업의 개요와 추진과정, 성과등을 정리함

■ 소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소사 지역은 뉴타운 지정과 해제에 따른 도시쇠퇴가 지속되며, 주민공동체가 붕괴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었다. 그러나 소사 지역은 부천의 발원지이자, 뉴타운 해제를 위한 주민 자발적 조직을 구성하는 등 주민역량의 결집 지역으로써 도시재생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기도 하다.

소사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방향에 부합하되, 소사 지역의 강점과 기회요인을 부각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그 계획이 수립되었다. 소사 지역의 도시재생은 소사 지역의 강점인 ‘결집된 주민역량’을 활용한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을 전략으로 한다.

소사 도시재생계획의 궁극적 목표는 소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있다. 그리고 그 방법은 1) 주민의 역량 결집과 강화, 2) 지역문화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개선과 자부심의 제고, 그리고 3) 마을 경제시스템의 선순환구조 구축이라는 세부 목표에 따라 진행되었다.

소사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비전 및 목표설정과, 세부전략 수립을 위해 대상지의 문제점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검토하였다. 당초 도시재생사업의 비전은 ‘안심마을’이었으나,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성주산을 품은 활기찬 소사마을**”로 변경되었다.

■ 2018 소사 도시재생 아카이빙

- 소사 도시재생사업의 2018년도 진행사업(총 14개 단위사업)의 사업개요, 추진과정, 사업 성과등을 기록함

구분		주요내용
맞춤형 커뮤니티센터 활성화	맞춤형 커뮤니티센터 조성	주민 활동 거점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사본동, 소사본3동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내 공공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맞춤형 커뮤니티 센터 조성
	마을미디어 정착	주민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마을미디어 제작·유통으로 마을재생사업 전반에 활용하고자 함
마을역량강화	주민공모	주민공동체 회복과 시설공간, 문화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주민공모사업을 실시하여 주민들 스스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자치역량 및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마을축제	주민 스스로 축제를 기획하여 주민들의 공동체 및 문화교류기회 마련하는 3개 지역축제를 지원
	주민·상인역량강화	2018년 소사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 - 5개 분야별 맞춤형 주민 교육 2018년 소사 대표 맛집 육성 컨설팅 - 외식업소 대상 메뉴 개발 및 개선 2018년 소사 도시재생 특강 - 도시재생 관련 심화 교육 2018년 마을벽화 그리기 프로그램 - 주민참여형 마을벽화
	소사문화 아카이빙	2018년 소사 문화 아카이빙을 통하여 아키비스트를 육성하고 마을 역사문화등을 소재로 스토리텔링을 진행하여 마을 홍보에 활용하고자 함.
	마을해설사	신규 해설사 양성 및 기존 해설사 교육, 마을해설사 교본제작, 민관 합동 네트워크 구성 및 연수 추진

예술창작소 정착	예술창작소 조성	호현로 주변에 위치한 공가를 리모델링하여 주민의 예술활동 지원, 마을공방 등 자생력 확보를 통한 지역 활성화 추진
마을특화가로 조성	특화가로	<p>특화가로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주산 가족산책로(안): 서울신학대학교~성주산 생활체육공원 일대 (L=850m, B=7m) - 호현로 역사가로(안): 부천시 소사구 호현로 일대(L=1,000m, B=15m) - 안심거리(안): 호현로 서측 일대 및 동남사거리 북측 일대 (A=53,000㎡)
	담장 없는 주거경관개선	'담장없는 주거경관개선 사업'을 통한 특화거리 조성
	한신 먹거리가로	기존 소재울 테마거리의 상권을 재활성화 시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한신시장 일대의 상권을 활성화 하고자 함
마을기업 육성사업		잠재력과 역량있는 마을기업 후보팀을 선정하여 홍보마케팅 및 판매 네트워크 구성, 상품 개발·제작 등 종합 컨설팅을 통하여 마을의 경제주체인 기업으로 정착
추가사업	주민·상인 협의체 역량강화	소사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으로 변화하는 마을에 주민·상인협의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주민에 의한 도시재생사업을 실현하기 위함.
	현장활동가 활동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소사본동·소사본3동 일원 주민을 현장 활동가로 지정하고 마을에서의 도시재생 관련 현장 활동을 지원(활동시간 1시간에 1만원 지급)

맞춤형커뮤니티센터활성화

맞춤형 커뮤니티센터 조성

(1) 사업개요

- 시·민·행 맞춤형 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
- 사업기간: 2017-2018년
- 주요내용
 - 주민 활동 거점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재별중, 소사본중동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내 중·중급생활층 리모델링하여 맞춤형 커뮤니티 센터 조성

(2) 사업 추진과정

2017년

- 2017.01.-02. 도시재생 아카이빙을 통한 주민역량 수렴
- 2017.05.16. 소재중재활용회센터 구조안전진단완료
- 2017.06.29. 다림중 문화센터 리모델링 설계 및 공사입주마련
- 2017.07.05. 소재중 체육문화센터 구조안전진단결과 준공
- 2017.07.07. 맞춤형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관련 공군 청문회 개최
- 2017.08.03. 다림중, 소재중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 계약 체결
- 2017.08.21. 2017년 제8회 부천시중·중급생활층신생위원회 개최 결과 발표
- 2017.10.05. 다림중, 소재중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 준공
- 2017.11.13. 리모델링 공사 추진계획 설명 열람
- 2017.11.30. 소재중 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 논의회
 - 다림중 문화센터 리모델링 논의회
- 2017.12.15. 다림중 문화센터 리모델링 공시 발주권역

- 2017.12.26. 소재중 문화체육센터 조성공사 발주권역

2018년

① 다림중 문화센터

- 2018.01.10.-01.16. 다림중 문화센터 리모델링 관련 공사 계약 체결
 - 공사기간 : 2018.01.10. - 2018.04.18.
- 2018.01.-04. 공사 추진
- 2018.04.18. 공사 준공



2018 소사 도시재생 아카이빙

Ⅲ. 마을 전문가 육성

1. 과업개요

1) 과업필요성

- 2017년 진행된 아카이빙 워크숍의 지속 운영 필요
- 역사적 자료의 보안을 통한 아키비스트의 교육 내용 보충
- 지역을 중심으로 한 아키비스트를 교육, 양성하여 지속적으로 마을 전문가로 활동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2018 사업에서도 전문가 양성 워크숍을 통해 주민 주도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함.

2) 추진체계

(1) 워크숍 홍보 및 참여자 모집

- 추진시기 : 2018년 6월
- 2017년 사업의 워크숍을 통해 양성된 아키비스트들을 기반으로 하고, 기타 마을 해설사에 관심이 있는 주민, 문화예술/교육복지/공동체에 관심 있는 주민을 추가 모집

■ 현수막·홍보 포스터 제작 및 게시

- 가톨릭대학교, 소사본동주민센터, 소사본3동주민센터, 디딤돌문화센터, 한울빛도서관, 소사국민체육센터, 소사어울마당, 소사본동성당, 소새울어울마당, 부천종합사회복지관, 송내어울마당, 부천문화원, 소사지역 내 상점 등

■ 지역주민 면대면 홍보

- 가톨릭대학교 내, 소사본3동 주민자치회, 부천종합사회복지관, 부천문화원, 소사어울마당, 소사본동 성당 등 방문홍보

‘소사문화 아키비스트’ 전문가 육성 과정에 초대합니다!

‘소사문화 아키비스트’란? 소사와 관련된 역사·문화등 자료의 조사·수집·정리·보존등 관리를 담당하는 자

‘소사문화 아키비스트’ 전문가 육성 과정은 부천시와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아키비스트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입니다. 소사의 역사와 문화를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프로그램 수료자는 소사지역 마을활동가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진행일정

회차	날짜	제목	강사
1	6/27	아카이빙 시작하기 - 전문가과정 도입과 소개	손동기 가톨릭대학교 중국어교수
2	7/4	기록의 방법들	손동기
3	7/11	기록의 공유 1 - 소사의 역사	양경직 한국문화연구소 연구위원
4	7/18	기록의 공유 2 - 정치권에 대한 기억	양경직 구지룡 북서골문화회
5	7/25	스토리텔링 - 기억을 기록하다	양경직 손동기
6	8/1	마을의 미래 - 전문가과정 종료	정영균 가톨릭대학교 교수

사업개요

참여대상 : 소사의 역사문화 발굴에 관심있는 부천시민 누구나
 참여기간 : 2018.06.27.-08.01.(매주 수요일) 오전 10시-12시 30분
 참여내용 : 소사와 관련된 역사 문화자료의 발굴 및 스토리텔링
 참여장소 : 다담동 문화센터 2층
 접수기간 : 2018.06.22(금) 까지

접수방법

접수방법 : 신청서 접수(영문 및 이메일)
 신청서 : 1. 부천시청 홈페이지(www.bucheon.go.kr)에서 다운로드
 2. 현장 비치 : 다담동문화센터 3층 소사 마을재생지원센터
 접수방법 : 1. 방문 접수 : 다담동문화센터 3층 소사 마을재생지원센터
 2. 이메일 접수 : jdw@11107@korea.kr
 문의처 : 가톨릭대학교 영지영 연구원 T. 02-2164-4408
 소사 마을재생지원센터 T. 032-626-3341

‘소사문화 아키비스트’ 전문가 육성과정 홍보포스터



[사진] '소사 문화 아키비스트' 전문가 육성 과정 홍보 현수막
(소사본3동 행정복지센터 게시)



[사진] '소사 문화 아키비스트' 전문가 육성 과정 홍보 현수막
(소사본동 주민센터 게시)

(2) 아카이빙 워크숍

- 추진시기 : 2018년 6월 27일 ~8월 1일 (매주 수, 총 6주)
- 장소 : 소사본동 마을재생지원센터 취미교실
- 추후 마을이야기자료집과 문학 작품화 작업의 기초분류인 소재중심-나무, 우물, 고개 등-분류인 주요마을역사와 이야기를 풍부하게 풀어내줄 주요 인물들을 중심으로 아카이빙
- 마을 아카이빙은 주민들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기초적인 역사이므로, 역사적 사실과 일치하는가를 비교 분석하면서 기록하기 위하여 향토역사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여 심도 있게 진행

[표] 아카이빙 워크숍 과정

회차	목표	내용
1	아카이빙 전문가과정 도입 및 소개	아카이빙, 생애사연구, 구술기록, 도시의 기록, 녹취과정 등 기초과정 소개
2	기록의 방법들	기록물 관리법, 참여형 아카이빙, 아카이빙과 스토리텔링
3	소재중심의 아카이빙	동화 및 시나리오 작업의 기초가 될 은행나무, 느티나무, 우시장, 고우물, 여우고개 등으로 구분하여 추가조사 및 기록,
4	인물중심의 아카이빙	정치용 이야기 - 특강
5	사건중심의 아카이빙	동화 및 시나리오 작업의 기초가 되는 사건
6	전문가과정 종료 및 아카이빙 정리	마을 아카이빙 전문가 수료식

2. '소사문화 아카이비스트' 전문가 육성 과정

1) 1회 교육

- 교육일시 : 2018.06.27.(수) 10:00~12:30
- 장소 : 디딤돌문화센터 취미교실
- 강연자 : 손동기(가톨릭대학교 연구교수)
- 참여인원 : 14명

(1) 강의내용

구분	주제	내용
1	아카이빙의 기초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사 마을의 '아카이빙' 작업은 17년 사업에서도 이루어진 바 있으나 '아카이빙'의 기초 개념과 기원에 대한 배경지식에 대한 교육과정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 본 강의는 아카이빙이 낯선 주민들을 상대로 아카이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목표로 하며, 이와 함께 왜 도시개발 과정에서 공동체 아카이빙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하여 함께 살펴봄으로써 향후 도시개발 과정에서 주민들의 활발한 참여를 통한 주민주도형 아카이빙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것을 돕는데 의의가 있음 • 아카이빙은 단순히 자료를 모으는 것이 아닌 개인과 공동체의 보존할 가치가 있는 자료를 찾고, 기록하고, 영구적으로 보

		<p>존하는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 본 강의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 째, 아카이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왜 아카이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봄 • 둘 째, 자료를 획득하는 과정인 기록의 획득과 이를 위한 자료의 이해방식에 대하여 학습하였으며, 공동체에서 어떻게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어떻게 아카이빙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함 • 셋 째, 지역개발과 연계해서 왜 공동체 아카이빙이 중요한지를 해외의 사례와 함께 현재 한국의 문제가 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을 통해서 살펴봄
2	아카이빙과 스토리텔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사문화 아카이빙 기록물이 스토리텔링화 되는 과정을 학습함으로써, 주민 아키비스트들에게 수집된 기록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이야기의 형태는 말, 글, 영상, 디지털 등이 있으며, 이야기의 형태와 성격, 이야기 하기의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아카이빙된 원자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음 • 특히 아카이빙 된 자료의 스토리텔링은

		<p>도시의 본 모습에 이미지와 감성을 입히는 작업으로, 도시 아카이빙은 경쟁력 향상과 이미지 제고의 방안으로 스토리텔링에 주목하고 있으며 스토리텔링은 도시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기여함 (도시 스토리텔링의 예시 : 프랑스 파리의 건축물, 남해 멸치, 제주도 올레길 등)</p>
3	기록의 획득과 이해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술기록의 특징(구술성, 주관성, 서사성)을 이해하고 이것이 문화에 적용되는 체계에 대해 학습하고자 함 • 인류학적 현지조사의 개념과 방법을 이해하여 주민 아키비스트들이 지역아카이빙의 목적과 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본 강의에 참여한 주민들은 아카이빙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잘 이루어졌으며 아카이빙은 기록을 획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리와 활용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한 부분에 많은 부분 공감함
4	지역개발의 역설과 남김의 소중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젠트리피케이션 개념을 이해하여 현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재생’의 의미의 왜곡에 대해 상기하고, 올바른 도시재생의 의미를 학습할 수 있게 하며, 이를 소사지역과 비교하여 도시재생 사업의 의미에 대해 주민 스스로 생각해볼 수 있게

		<p>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문화정체성을 제고하기 위한 주민의 역할이 중요함을 상기시키며 소사 도시재생에서의 주민참여가 가지는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함 • 해외 사례(파리의 le 104, 암스테르담의 Westergasfabreik) • 참여 주민들은 해외 사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도시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이 성공하는 사례에 대해서 매우 흥미로워하였음
--	--	---

(2) 프로그램 진행 사진



2) 2회 교육

- 교육일시 : 2018.7.4.(수) 10:00~12:30
- 장소 : 디딤돌문화센터 취미교실
- 강연자 : 손동기(가톨릭대학교 연구교수)
- 참여인원 : 17명

(1) 강의내용

구분	주제	내용
1	기록물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강의는 아카이빙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록의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더 나아가 기록을 위한 방법으로 '인터뷰 방법'에 대한 이해와 기술 습득을 목표로 함 • 아카이빙은 자료를 수집하는 것 이외에도 자료를 잘 관리하고, 관리한 자료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 또한 아키비스트의 역할이라는 점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함 • 2강에서는 아카이빙의 기초자료를 수집하는데 대한 이해와 방법론에 대해서 살펴 보았으며 특히 인터뷰를 하기 위한 준비 절차와 인터뷰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에 주목하여 강의함 • 아카이빙은 단순히 주어진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기록방법들을 필요로 하므로 아카이빙의 수집과정과 전

		<p>문적인 기록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위해서 본 강의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하여 진행함</p>
2	<p>기록정보 콘텐츠와 기록마을 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 째, 기록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기록물 관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살펴봤다. 이 과정에서 기록이 단순히 쌓는 것이 아니라 기록하는 사람의 책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보았으며 특히 공동체 기록물 성공사례인 ‘기록마을’에 대해서 살펴봄 • 사례 : 강원도 정선군, 전라북도 임실군, 경상북도 청도군의 기록마을 사례
3	<p>참여형 아카이빙의 장점과 참여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카이빙은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함 • 이에 아카이빙 활용을 위한 ‘참여형 아카이브 구축’에 대해서 살펴봄 • 주요 해외사례로 ‘911 디지털 아카이브’와 ‘브라세로 역사 아카이브(Bracer History Archive)’ 등의 사례를 설명
4	<p>구술인터뷰의 유형과 진행 프로세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셋 째, 아카이빙을 위한 자료수집에서 중요한 기록방법 중에서 인터뷰에 대해서 설명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인터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점과 주의해야 할 점들을 알아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주민들은 아키비스트의 역할이 생각보다 많다는 점에서 많이 놀랐다. 또한 해외에서 시민들에 의해서 참여형 아카이브 구축이 이미 잘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많이 부러워했다. 한편 인터뷰를 하는데 있어서 준비, 진행 그리고 정리를 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비교적 잘 했다. 그리고 아키비스트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쉽지도 않다는 점에 크게 공감함
--	--	---

(2) 프로그램 진행 사진



3) 3회 교육

- 교육일시 : 2018.7.11.(수) 10:00~12:30
- 장소 : 디딤돌문화센터 취미교실
- 강연자 : 양경직(부천향토문화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참여인원 : 14명

(1) 강의내용

구분	주제	내용
1	소사의 연혁과 지명 유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사의 지명은 소사역사의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서 마을해설사들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나 계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하므로 아카이빙교육을 통해 좀더 자세히 알려줄 필요가 있음 • 또한 해설사교육에는 가장 기본적인 것만 포함되어 있으므로 향토사학자의 강연을 통해 주변 지역에 대한 내용 및 포괄적인 내용을 보충할 수 있음 • 동시에 해설사 이외의 주민들에 대해서도 과거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어르신들에게는 추억과 기억, 젊은 주민들에게는 애郷심을 고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소사문화 아키비스트’ 전

		<p>문가 육성과정의 교육내용으로 채택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사 아카이빙 소재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소재 등과, 소사 지역에서 오랫동안 존재하였으나 주목받지 못하였던 아카이빙 소재 등에 대하여 학습하고, 도시재생 사업 및 스토리텔링화 작업의 주요 콘텐츠들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지역 아카이빙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도록 함 • 여우고개, 성주산 등 역사적 사건들을 통하여 지금은 지명이 바뀌게 된 소재들에 대하여도 그 의미와 배경에 대하여 학습하도록 하여 지역문화와 역사적 사실을 연계한 교육컨텐츠를 제공
	<p>소사 마을 스토리텔링 소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새천, 소사역과 소새울역, 소사복숭아, 성주산, 여우고개, 옛 경인로, 한미재단 등

(2) 프로그램 진행 사진



4) 4회 교육

- 교육일시 : 2018.7.18.(수) 10:00~12:30
- 장소 : 디딤돌문화센터 취미교실
- 강연자 : 구자룡(한국작가회의 부천시부 상임이사)
- 참여인원 : 12명

(1) 강의내용

구분	주제	내용
1	정지용 시인과 부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지용은 소설의 인물로 꼽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서, 소설에서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소설의 천주교를 부흥시키고 성당을 건립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화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 그런 점에서 현재 정지용 길 등 특화사업을 조성하고 있으나 정지용에 대한 스토리텔링 작업은 다소 부족하므로 아카이빙과정을 통해 내용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 본 과정에 마을해설사, 마을미디어활동가, 통·반장,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주민들이 참석하고 있으므로 대표적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들으면서, 소설의 역사길을 구상해볼 수 있게 함

2	부천시와 정지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지용의 고향 충북 옥천에서는 정지용 소재를 스토리텔링화하여 지역문화 내 정체성을 구축한 사례가 있음 • 이와 같은 지역사례를 함께 살펴봄으로서 마을 아카이빙 콘텐츠의 발굴과 개발과정에서의 주의점과 과정등을 공유함
---	----------	--

(2) 프로그램 진행 사진



5) 5회 교육

- 교육일시 : 2018.7.25.(수) 10:00~12:30
- 장소 : 디딤돌문화센터 취미교실
- 강연자 : 양경직(부천향토문화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참여인원 : 12명

(1) 강의내용

구분	주제	내용
1	소사동 인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종응, 백성욱, 이명직, 김만술 등 • 소사에는 유명한 인물이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소사 지역과의 연결성이 있는 많은 인물에 대한 설명을 통해 소사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키울 수 있음 • 동시에 앞으로 소사의 인물로 지정할 수 있을만한 사람이 있는가를 가늠해보고, 역사적 인물 이외에 주변에서 존경받는 인물들에 대하여 이야기해봄
2	소사동의 사건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사리 및 6개마을 독립만세운동, 소사우시장 • 소사의 사건 중 독립만세운동은 이 지역에서 강조되지 않았던 사건이나, 추후 소사의 역사로 강조할 만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함 • 지금까지 마을해설사 교육이나 기타 자료로

		<p>공개되지 않았던 내용이므로 본 교육을 통해 강조함과 동시에 이를 스토리텔링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소사우시장 역시 현재는 우시장 터만 남아있지만 과거를 스토리텔링하기에 좋은 장소이자 기억이므로 이에 대한 주민들의 기억을 되살리고 마을 아카이빙 소재로서의 의미를 찾고자 함
--	--	---

(2) 프로그램 진행 사진



6) 6회 교육

- 교육일시 : 2018.8.1.(수) 10:00~12:00
- 장소 : 디딤돌문화센터 취미교실
- 강연자 : 정영금(가톨릭대학교 소비자주거학과 교수)
- 참여인원 : 15명

(1) 강의내용

구분	주제	내용
1	어떤 마을에서 살고 싶으세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관계와 무형자본의 의미: 도시재생 과정에서 사라져가는 인간관계 및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기 위해 관계의 중요성을 설명함 • 기존의 재개발과는 차별화되는 재생사업의 의미와 주민활동의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함 • 국제지표(OECD 사회적관계)로 보는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관계망 파괴가 빨리 진행되고 있으며 위급한 시기에 의존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공동체 형성에 매우 저해되므로 소새마을 주민의 경우에 빚대어 설명함 • 동시에 소새의 마을만들기나 주민활동의 현 주소를 살펴봄
2	마을 만들기과 아카이빙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의 마을만들기 사업(정든 마을에서 살아가기): 일본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같이 노인들만 사는 지역이 많아지고 공동체가 훼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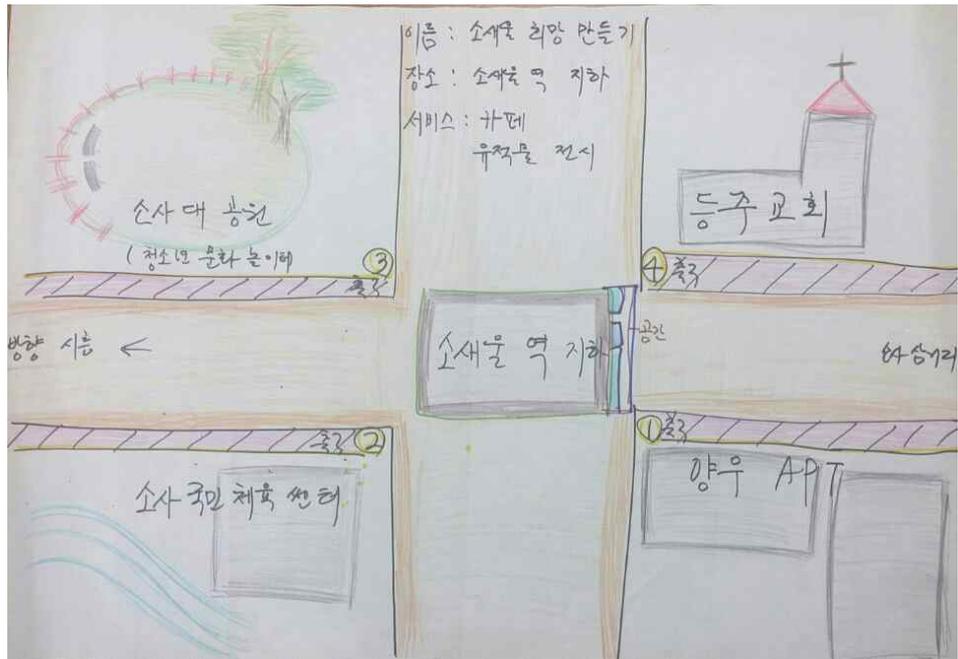
		<p>손되고 있지만, 다행히 우리보다 빨리 마을만들기를 시작하고 노인들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든 사례들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사례 제시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기록의 사례 (광주 양림기억창고, 부산 이바구공작소 등): 우리나라에도 마을만들기 혹은 도시재생사례가 많이 만들어 지고 있으므로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줌 • 대표적으로 광주 양림기억창고는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며, 특히 전시물뿐 아니라 지금부터의 역사도 함께 저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놓아서 소사 아카이빙 센터(가칭)의 벤치마킹 사례가 될 수 있음. 부산 이바구공작소는 규모가 큰 사업이어서 모두 벤치마킹 할 수는 없지만 추후 다른 활동을 통해 방문가능하므로 강의 중 소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이 만들어가고 활동이 많은 성미산마을은 소사마을과 지리적으로 유사하여 벤치마킹하기 좋은 지역임. 특히 성미산마을은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이 많고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마을이란 점에서 성공 사례로 다루어질 의미가 있음 • 시설이나 센터 자료공개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곳은 마포문화비축기지로서 개발과정과 기록정리에 도움이 될 수 있음

	<p style="text-align: center;">살아있는 공간, 함께 만들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의 내용들을 먼저 알아본 후 이를 기초로 소사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함 • 아카이빙 결과물을 재구성하여 아카이빙 결과물을 저장할 수 있는 센터의 위치와 활동내용들을 생각해봄 • 각 팀당 5-6명씩 구성하여 주민들이 만들고 싶은 아카이빙 센터를 구상하고 그려보도록 함(아래 구상안 그림 제시함) • 이를 위하여 종이, 펜, 기타 활동에 필요한 물품들을 나누어주고 각자 의논하도록 함 • 이는 주민들이 생각하는 바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되며 그 내용을 반영할 수 있음 • 진행과정에서 처음에는 어떻게 할지 몰라 당황하였지만 시간이 지나고 강의자나 보조자들이 함께 도와준 결과, 팀 모두의 개성을 살린 계획안이 구성됨 • 계획을 하면서 서로 몰랐던 장소도 알게 되고 젊은 층과 어르신들의 요구가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알게 됨. • 예: 젊은 층은 자녀들이 교육 이외의 활동을 동네에서 하고 싶어 하는데 이는 어르신들이 가르치는 한자학교 혹은 바둑학교 등으로 연계가능함.
--	---	---

■ 조별 발표내용

조이름	사진/내용
<p>No.1</p>	 <p> ◎ 모든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공간 · 전래놀이 (팽이치기, 공기, 딱지치기, 실뜨기...) · 마을 전망대 · 나눔장터 운영 </p> <p> No.1 공영주차장 소사동함시장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 : 소사 느티나무 부근 ▪ 장소명 : 느티 사랑방 ▪ 3층 구조 (1층 소사역사전시관, 2층 쉼터, 3층 전망좋은 카페, 옥상 전망대) ▪ 모든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공간 구성 ▪ 팽이치기, 공기, 딱지치기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전통놀이 행사 진행

소새울
희망
만들기



- 장소 : 소새울역 지하, 소사대공원
- 장소명 : 소새울 희망 만들기 전시관
- 지역민들의 이동이 잦은 소새울역 지하에 공간 마련
- 카페 서비스와 소사의 역사관련 유적물 전시
- 유적물 전시는 소새울역의 상징성을 더욱 살릴 수 있는 이점이 있음
- 소사대공원을 청소년 문화놀이터로 만들어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문화 형성을 촉진하고 지원함

누구나
소새울



- 장소 : 소새울 역과 한신시장 부근 주민센터, 소사대공원
- 장소명 : 누구나 쉼터
- 지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쉼터' 성격의 공간 구성
- 쉼터 내 휴식공간 및 프로그램 진행으로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
- '바둑아 놀자' 프로그램 : 어르신께 바둑 배우기
- '서당 놀이' 프로그램 : 한자교실
- '나눔 나라' 프로그램 : 책, 장난감 등의 물건을 교환하는 베품시장

7) 진행결과

(1) '소사문화 아키비스트' 전문가 육성과정 수료식 진행

- 일시 : 2018. 8.1. (수) 12:00~12:30
- 장소 : 디딤돌문화센터 2층 취미교실 2
- 내용 : '소사문화 아키비스트' 전문가 육성과정 참여자 중 프로그램 수료자 (프로그램 3회 이상 참석자, 총 16명)를 대상으로 수료장 수여식 진행
- 총 수료인원 16명 중, 15명이 참석하여 수료장을 수여함.



'소사문화 아키비스트' 전문가 육성과정 수료식

(2) 주민대상 설문

- 대상 : '소사문화 아키비스트' 참여 주민
- 목적 : 프로그램 진행 전 주민의견 수렴과 진행 후 프로그램의 효과 및 개선 사항등에 대한 주민의견 수집
- 진행일시 : (사전) 1회기 강의일 2018. 6. 27. (수)
(사후) 6회기 강의일 2018. 8. 1. (수)

구분	내용	
프로그램 사전 설문 (응답자 : 12명)	아키비스트 활동 인지도	'보통 미만'의 응답이 절반
	활동 참여경로	'지역내 홍보물을 보고', '지인을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사항	'지식의 습득과 지역을 위한 나눔' '소사 지역의 역사와 정보에 대한 이해' '삶의 질 향상' '지역에 대한 애착심 형성'
	건의 사항	'사업 추진과정과 결과를 모두가 공감하며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함' '지속적인 교육, 연대와 소통'

프로그램 사후 설문 (응답자 : 13명)	소사지역에 대한 인식	대부분 응답자의 소사 지역에 대한 인식 (관심, 애정, 정체성)은 프로그램 참여 전 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음
	희망 프로그램	‘아카이빙’ ‘마을만들기’ ‘복지프로그램’ ‘마을 해설’
	후속 프로그램을 위한 건의사항	‘프로그램이 더 길었으면 좋겠다’ ‘후속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의사 있다’

『소사문화 아카이스트』 전문가 육성 과정 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사전 설문지

본 조사는 부천시 도시재생사업으로 진행되는 『소사문화 아카이스트』 전문가 육성 과정 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입니다. 본 설문조사의 내용은 응답자의 일반적 정보, 아카이스트에 대한 사전 지식과 관련 경험 유무, 본 프로그램에 대한 개인사항 등입니다. 『소사문화 아카이스트』 전문가 육성 과정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과 소사문화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본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신데 감사드리며, 본 프로그램이 모든 참여자 분께 소사의 역사와 문화를 새롭게 이해하는 소중한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응답자 일반사항】

-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연령대는 무엇입니까?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이상
3. 귀하의 거주지는 어느 곳입니까?
① 부천시 소사구
② 부천시 내 소사구를 제외한 인근 지역
③ 부천시를 제외한 수도권 인근 지역
④ 기타 ()
4. 귀하는 부천시 내 공동체활동(모임)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4-1. (문항 4에 "예" 라고 답한 경우) 어떤 공동체활동(모임)에서 활동하였습니까?

공동체 활동(모임)명 :

【아카이스트 활동 관련사항】

- 1. 귀하는 '아카이스트' 활동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① 전혀 모르고 있다
② 다소 모르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아는 편이다
⑤ 매우 잘 알고 있다
2. 귀하께서 본 프로그램을 포함한 '아카이스트' 관련 활동을 알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① 지역 내 게시된 홍보물
② 온라인 홍보물
③ 문자 홍보
④ 지인을 통해
⑤ 기타 ()
3. 귀하는 본 프로그램 참여 이전, 도시재생사업(아카이빙/마을해설/마을만들기 등)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3-1. (문항 3에 "예" 라고 답한 경우)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까?

프로그램명 :

- 4. 귀하께서 '소사문화 아카이스트' 활동을 통해 다루고 싶은 주제는 무엇입니까?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① 역사 ② 인물 ③ 사건
④ 공간 ⑤ 기록의 방법 ⑥ 스토리텔링
⑦ 기타 ()

5. 귀하께서 본 프로그램에 기대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자유롭게 서술해 주십시오.

6. 기타 건의사항 /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설문에 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프로그램 사전 설문지

IV. 스토리텔링 북 제작

1. 과업개요

1) 과업필요성

- 소사지역 문화의 원형 또는 사회문화적 요소를 발굴하고 그 속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찾아내고 이를 새롭게 창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 마을의 역사자료를 단순히 보존하는 것에서 나아가 스토리텔링 과정을 통해 지역민들이 쉽게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음
- 또한 영화 또는 애니메이션을 통해 시각화로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은 확대의 특징을 뚜렷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활용가치를 지님
- 스토리 구성방법 중, 보편적으로 쓰이는 ‘동화 모델’을 통해 누구나 쉽게 공감하고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을 차용

2) 추진과정

- 2018. 05.19. 양경직 위원(부천문화원) 1차 마을기초자료 제공
- 2018. 05.29~07.09. 기타 마을역사자료의 조사 및 수집
- 2018. 07.09. 양경직 위원(부천문화원) 2차 마을기초자료 제공
- 2018. 07.25. 양경직 위원(부천문화원) 3차 마을기초자료 제공
- 2018. 08.03. 양경직 위원(부천문화원) 4차 마을기초자료 제공
- 2018. 07~08. '이야기 자료집' 1차 제작
- 2018. 07.12. 동화제작관련 1차 창작진 미팅
- 2018. 07.23. 동화제작관련 2차 창작진 미팅
- 2018. 08.22. 중간보고
- 2018. 08.31. '이야기 자료집' 초안 제작
- 2018. 10.01. 동화제작관련 3차 창작진 미팅
- 2018. 09~10. 1차 동화제작
- 2018. 10.08~11.02. '이야기 자료집' 1차 교정
- 2018. 10.17~31. 2차 동화제작
- 2018. 11.02. '이야기 자료집' 2차 교정
- 2018. 11.07. 수시보고 및 4차 창작진 미팅
- 2018. 11.08~10. 3차 동화제작
- 2018. 11.12~17. 4차 동화제작
- 2018. 11.17~20. 동화 최종교정 및 5차 수정본 제작

(1) 소새마을 이야기 자료집

- ‘소새마을 이야기 자료집’은 소사 지역의 주요 콘텐츠 6가지(은행나무, 소사우시장, 고우물, 여우고개, 소사리만세운동, 정지용시인)와 관련된 역사자료를 정리하여 기록함
- 이야기 자료집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역사자료를 재구성한 형태로, 이는 ‘이야기 문학집’ 제작의 기초자료로 활용됨
- 역사적 사실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제작 과정 중 2회의 자문과 내용교정을 실시함

(2) 소새마을 이야기 문학집

- ‘소새마을 이야기 자료집’을 바탕으로 6가지의 내용을 6편의 동화와 1편의 시나리오로 제작함.
- 당초 동화는 ‘소새마을 이야기 자료집’의 내용을 모티브로 하여, 어린이가 읽기 쉬운 창작물 형태로 계획하였으나, 제작 과정에서 사업의 목적에 따라 ‘이야기 자료집’을 각색한 형태로 사실 및 마을이야기 전달을 위한 이야기로 내용의 전개방식을 수정함
- 이야기 문학집의 자문 및 창작진은 다음과 같음

자문	양경직(부천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동화 제작	허남성 작가(극단 그리고 대표)
삽화 작업	지창림 화백(프랑스 낭트 갤러리 트레즈 대표)

2. 소새마을 이야기 자료집

- 2018 소사문화 아카이빙의 스토리텔링 소재(은행나무, 소사우시장, 고우물, 여우고개, 만세운동, 정지용)에 대한 역사적 자료를 줄글의 형식으로 편집하여, 이야기 제작의 기초가 되는 내용으로 구성함(총 23페이지로 제작)
- 이야기 자료집의 6가지 소재에 따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은행나무	‘1000여년동안 소새마을과 희로애락을 함께 해온 은행나무 이야기’
소사우시장	‘생동감 넘치던 소사의 옛 모습 : 소사우시장 이야기’
고우물	‘마을의 풍요와 무병장수를 기원하던 대동우물 이야기’
여우고개	‘소새와 시흥, 인천을 이어주던 여우고개 이야기’
만세운동	‘자랑스러운 여섯 마을의 3.1. 만세운동 이야기’
정지용	‘소새에서 믿음을 실천한 시인 정지용 이야기’

(사진첨부)

소새마을 이야기 자료집

3. 소새마을 이야기 문학집

- 제작기간 : 2018년 7월~12월
- ‘소새마을 이야기 자료집’의 내용을 바탕으로 6개 소재의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의 형태로 발전시킨 6편의 동화와 1편의 희곡을 수록함

동화	은행나무 이야기
	소새우시장 이야기
	대동우물 이야기
	여우고개 이야기
	만세운동 이야기
	정지용 이야기
시나리오	복사골 경로당

(사진첨부)

소새마을 이야기 문학집

V. 아카이빙 사업의 향후 활용방안

1. 아카이빙 활용방안

- 2018 소사문화 아카이빙을 통하여 소사 지역주민들의 삶의 이야기가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의 문화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이를 토대로 아카이빙의 활용방안을 제안함
- 지역자원을 활용한 효과적인 스토리텔링은 지역의 특성화를 통한 지역브랜드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지역이 갖고 있는 풍부한 역사적·문화적 자원을 기반으로 스토리텔링 자원화하여 다양한 콘텐츠로 활용이 가능
- 문화콘텐츠 자원의 활용은 사회적·문화적·경제적 파급효과를 유발시킬 수 있다. 특히 스토리텔링은 콘텐츠 산업의 원천 자료이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
-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스토리텔링을 발굴하고 이를 아카이빙함으로써 지역의 사회적·문화적 역량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산업적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음

경제적 효과	공연, 영상, 영화 등
사회문화적 효과	지역정체성의 강화 및 지역브랜드이미지 제고

■ 예시 : 안동시 ‘왕의 나라’, 부산광역시 ‘이바구공작소’



안동시 ‘왕의 나라’

: 몽골 침입기 공민왕의 안동몽진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뮤지컬을 제작함.

(사진출처 : 경북도민일보)



부산 ‘이바구공작소’

: 부산 스토리텔링 협의회를 조직하여 부산지역 스토리텔링 네트워크를 구축, 이를 통하여 다양한 지역의 원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1차 스토리텔링 작업함

(사진출처 : 뉴스원)

1) 정책제안

<p style="text-align: center;">지역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토리텔링의 원천자료인 이야기는 민간 중심의 네트워크를 통한 자발적인 추진이 관주도형보다 성공확률이 클 것으로 사료됨 • 스토리텔링 사업의 지속과 활용을 위하여 마을주민·전문가·공무원이 소통·융합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구축 • 현재 활동하고 있는 ‘소사본동 마을 만들기 기획단(소마단)’과의 협업을 위한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
<p style="text-align: center;">예술창작소와의 협업 시스템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창작소와의 협업 시스템을 구축 • 마을 주민들의 아이디어 창작화·상품화 등의 활성화를 추진
<p style="text-align: center;">마을유산 지킴이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사동 유산을 지키고, 의미를 부여하고, 전통과 예술미를 가미해서 복원하는 활동 활성화 • 도시재생 과정에서 사라진 지역유산의 경우는 그 자리에 비문을 새겨두어 기록화하여 교육자료로 활용

<p>마을주민 참여형 스토리텔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들의 쉽고 자유로운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단’ 혹은 ‘도시재생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소사주민 이야기 사랑방’을 구축, 운영함으로써 향후 새로운 이야기를 발굴하고, 현재의 이야기를 활용한 새로운 이야기를 구축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콘텐츠 활용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마을 주민 참여형 스토리텔링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등 마을 주민들이 참여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 • 지역 언론을 적극 활용해 홍보를 강화하며, 다양한 스토리를 마을 주민들에게 제공하여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마을 이야기와 역사를 스토리텔링화를 통해 애니메이션 제작, 지역 소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시민들의 애향심과 자긍심 고취가 필요
-----------------------	--

2) 사업제안

<p>소사아카이빙 센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사의 역사와 변천과정 등을 기록함과 동시에 정보센터의 역할을 수행. 주민의견을 토대로 할 때 단순 기록관 보다는 주민활동공간과 겸하거나 카페 등의 상업시설과 결합, 혹은 유동인구가 많은 역사 활용. • * 명칭대안 : 느티사랑방, 소새울 희망만들기, 누구나شط터 등  <p>사업예시 : 서울 마포구 문화비축기지 이야기관 (사진출처 : 서울특별시 공식블로그)</p>
<p>소사마을 영상자료 제작 및 상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사의 역사, 변천과정, 과거 및 현재의 인물들, 도시재생과정 등을 영상으로 기록 혹은 만화로 재구성하여 지역 내 문화공간에서 상영  <p>사업예시 : 양림기억창고(메모리박스) (사진출처:양림기억창고 페이스북)</p>

소사마을 도보여행길

- 소사마을 역사길 : 은행나무-느티나무-소사종합시장(경인철도)-우시 장터-대동우물-산새공원
- 소사마을 인물길 : 소사역-소사성당-소명여고-정지용길-예술창작소
- 소사마을 둘레길 : 정지용길-은행나무-성주산-소새울역



사업예시 : Boston Walks and Trails
 (사진) Black Heritage Trail
 (사진출처 : Boston National Park Service)

소사마을 연극제

- 2018년 제작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인형극과 주민연극 실시
- 시나리오를 재구성한 어린이용 단편 인형극
- 학생과 어른신이 협력하는 동네 연극



사업예시 : 성미산동네연극축제
 (사진출처 : 민중의소리)

지역단체 협력사업

- 소사마을 이야기를 활용하여 마을기업 공모전 : 마을 단체 및 지역대학의 참여를 유도하며 사회적기업의 형태로 운영 가능
- 소사마을 이야기를 활용한 보드게임 제작/게임공모전 - 마을이야기를 간단한 게임을 통해 전달함으로써 초등생 및 어르신에게 보다 쉽게 접근가능(학교 및 노인정에 배부 가능)



사업예시 : 가톨릭대학교 과제공모전

2. 스토리텔링 활용방안

- 소사 지역 스토리텔링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쇄효과(linkage effect), 특히 문화적,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의 정책을 수립해야 함
- 스토리텔링은 원천 자원이 매우 중요하므로 원천 자원인 스토리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게임 등 여러 콘텐츠 활용과 개발에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원천자료의 조사, 발굴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투자와 인식개선이 필요
- 소사동의 스토리텔링 자료는 은행나무, 느티나무 같은 고목, 우시장, 독립만세, 산업화 시기의 이야기 자원 등으로 특화하여 그 활용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1) 지속적인 스토리텔링을 위한 원천자료의 축적과 활용을 위한 전문 인력을 유치 및 양성, 2) 관련기관간의 유기적 협력을 위한 스토리텔링 플랫폼 구축을 제안함
- 이런 맥락에서 ‘소마단’이라는 시민단체가 오랜 기간 동안 지역의 원천 이야기를 조사, 발굴을 해왔고 이를 체계적으로 축적해왔다는 점에서 이들과의 향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됨

1) 사업제안

<p>스토리텔링 아카데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토리텔링 인력양성과 스토리텔링 시민 단체 육성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전문가 과정과 일반인 대상 과정을 운영. • 이는 '소사본동 마을 만들기 기획단(소마단)'과 협업이 가능. • 스토리텔링 아카데미를 통해서 주민 주도적 참여 유발
<p>스토리텔링 디렉토리(director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토리텔링 전문가와 아카데미 이수자의 활동 지원 프로그램 • '소사 이야기할머니·할아버지 사업단', '마을 해설사 사업', '마을 기자단' 등으로 특성화 사업 추진.
<p>스토리텔링 축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시와 같이 스토리텔링이라는 원천자료를 통한 축제화를 통해서 새로운 이야기의 발굴과 이야기의 다양한 활용을 활성화 • 이를 통해서 시민 소통, 지역 정체성 확립을 기대할 수 있음. 더 나아가 부천의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미디어아트와 결합된 첨단 ICT융합스토리콘텐츠의 개발도 촉진할 수 있음.

2) 스토리텔링 북 활용방안

<p>주민 백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사마을 이야기 자료집을 활용하여 각급학교 및 지역주민 관내 대학등을 대상으로 한 백일장 실시 • 소사마을 이야기 자료집은 스토리텔링을 위한 기초 원자료로서 다양한 형태로 변형될 수 있으므로, 여러 사업에 포함될 수 있음 • 사업예시 : 소사 백일장 • 사업연계 : 마을축제, 마을미디어, 주민공모 사업 등 • 대상 : 초등부, 중등부, 대학생 및 일반부, 어르신부 • 참가내용 : 동화, 시, 그림 등 • 특전 : 상금 및 전시
<p>소사마을 컬러링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유행하는 컬러링북은 젊은 층에게는 복잡한 마음을 달래기 위한 힐링부품으로, 노년층에게는 두뇌활동을 위한 워크북으로 인기를 끌고 있음 • 이에 착안하여 이야기 자료집과 동화의 내용을 간단한 컬러링북으로 만들어 노인복지관 및 노인정에 배포하여 활용함
<p>소사마을 보드게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드게임은 게임판, 카드, 주사위, 나무토막 등의 물리적인 도구들을 활용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어린이 교육용이나 노인 치매 방지용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며, 대상이나 수준별로 개발되는 장점이 있음. • 따라서 소사마을 이야기자료집을 활용하여 다양한 소사의 역사를 내용으로 삼아 문제를 만들고, 이를 맞추면서 소사에 대한 지식과 애향심을 가질 수 있음.

2018 소사문화 아카이빙 결과보고서

발행일 2018년 12월

발행인

기획·편집

디자인·인쇄

* 이 책은 「2018 소사문화 아카이빙」사업의 사업결과물입니다.

2018 소사문화 아카이빙
결과보고서